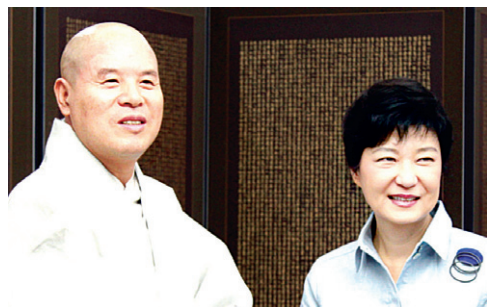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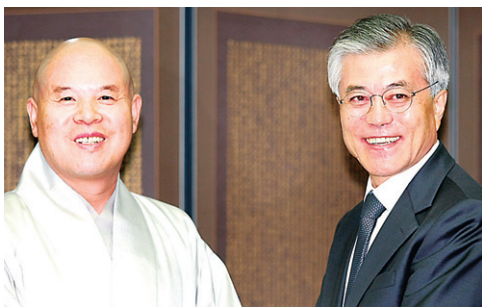
“전통사찰·역사 가치에 신경써달라”

조계종 총무원, 대선 8대 정책 제안

1. 전통사찰 종합 정책 수립
2.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가치 존중 정책
3. '10.27법난' 관련 법 개정
4. 다종교,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법 제정
5. 조계사 주변 문화관광지구 조성
6. 남북 화해 협력과 지속적 남북불교 교류
7.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해소 정책 마련
8. 생태 보전, 생명평화 정책 시행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운데 대선 유력 후보들의 불교계 예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가장 먼저 지난 9월 3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찾았으며,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1월 6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1월 1일 각각 예방했다.



전통문화 증진에 초점 약자 위한 법안 제정도 8개 정책 의제 제시해

문화콘텐츠 포털 구축, 남한산성·북한산성 호국성역화, 용건릉 일대 효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10.27법난에 대해서는 사죄 사제, 피해 범위 확대 등을 법 개정에 다룰 것을 주장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요범죄법과 종교평화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다종교사회에서 일부 종교인들이 이웃 종교를 폄훼하거나 공격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상식선에서 상호를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주변 정비를 통한 서울 문화벨트 조성을 주장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는 전

통사찰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최적의 위치에 있다”며 “문화관광지구 조성 시 서울 문화벨트 구축사업,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정비와 편의 시설 구축 등 주변 지역 활성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계종은 △북한 불교문화재 전수 조사 △금강산 4대 사찰 보수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복지센터 운영 △불자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 설립 △사회 통합을 위한 ‘가

칭)화해와 평화위원회’ 국가 기구 설치 △사찰 및 사하촌 에너지 현황 조사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 등을 각 분야 세부 정책으로 제시했다.

조계종은 “이번 정책 제안서는 말 그대로 제안으로 각 후보 캠프에서 불교와 전통문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것”이라며 “이대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종일 기자

18대 대선 캠프 불교 조직 결성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후보자들의 1000만 불심을 잡기 위한 조직 결성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조직을 구성한 곳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다. 새누리당은 10월25일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불교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불교본부장에는 정치권 내 불교통으로 꼽히는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으며 기획재정부위원장 강길부, 정부위원장 김정은, 행안위원장

김태환, 외통위원장 안홍준,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 등이 동참했다. 실무진에는 정병국, 백승진, 강태진, 김원곤 씨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11월 12일 불교특위 발대식을 열었다. 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 고문에는 신진규, 이용희 씨, 상임부위원장에는 장운 담쟁이도란 대표, 이상근, 이남재 씨 등이 참여한다.

안철수 진심캠프는 불교조직인 미래불교포럼을 11월 8일 출범했다. 대표로는 임동주 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정용정, 김관태, 김대실, 오정림, 황희수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재개 범국민대회 열린다

11월 17일 강원도 고성군서

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가 11월 17일 금강산관광재개 촉구를 위한 범국민 대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소속단체 회원 5백 여명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을 방문 관광재개를 촉구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갖는다.

행사 일정은 오전 개막식, 고성군 남측 CIQ(남북출입사무소)와 통일 전담대 방문, 거

진사찰 둘러보기, 주민들과 함께하는 금강산 노래자랑 등으로 꾸며진다.

불교계에서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스님, 박재산 국장 등이 참여한다. 박재산 국장은 “이날 행사는 지난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처음 시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 인근의 주민들을 위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정토회, 주간동아에 ‘손배소’

정토회(지도법사 법륜)가 주간동아를 대상으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토회는 주간동아의 ‘믿기 힘든 법륜 스님의 행적’ 기사를 쓴 해당기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법원에 신청했다.

주간동아는 11월 5일 861호에 ‘법륜스님 믿기 힘든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5면에 걸쳐 법륜스님과 정토회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정토회는 “보도된 내용은 17년 전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이미 정정보도 결정을 받은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7일 쌍용차 농성장을 찾아 단식 농성 중인 김정우 지부장(사진 오른쪽)을 위로했다.

조계종, 쌍용차 문제 해결위한 행보 연이어

조계종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1월 7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9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정우 쌍용차 노조지부장을 위로하고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자승스님은 “의지 전달을 위한 단식도 좋지

만 몸을 회복하셔서 다른 모습으로 향의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재가종무원들도 11월 8일 쌍용차 정리하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발원하며 108배 정진에 동참했다.

신종일 기자

日 목조문화재 방염관리는?

여수 항일암 전소에 이어 이번 내소사 화재는 목조문화재 방재 관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재로 만들어져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같이 목조문화재가 많은 일본은 1965년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찰 내부에 방재시스템을 설치했다.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화재 감지 경보설비 및 소화전 설비 △방수층 △물분무소화설비 △화재대비 응급수,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특히 분수와 같은 스프링클러로 감싸거나 민감한 광센서를 장착해 화재발생과 동시에 소화활동을 하는 등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갖추고 있다.

200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와카야마현 고야산 일대에 위치한 사원들은 건물의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인 ‘미네지(峰寺)’ 사원에는 물컾터 시스템이 마련돼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곳곳에 설치된 노즐이 물을 뿜어내 건물 전체를 에워싼다. 열 감지기만으로는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에는 대처가 곤란하다고 판단, 광센서를 이용해 약 0.3m의 불꽃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또 물대포로 직접 문화재로 쏠 경우 막대한 손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방수층을 방수 대상 건물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설치하는 등 섬세한 예방책을 펼치고 있다.

역시 일본 국보인 ‘부동당(不動堂)’에는 지붕에서 직접 물을 분사하는 시설을 장착했다. 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건축 문화재인 어영당에는 건물 주변에 건물 형태를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특징은 각 건물 특성에 맞는 방재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문화재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원인은 ‘방화’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도 프랑스 퐁피두센터처럼 목조건축물 지역에는 라이더 등 인화성 물품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인적 역량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해체를 통해 목조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의 경우 해체보전 작업은 시행 이후 시행자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해당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귀결된다.

건물을 완전히 분리 해체한 뒤 보수 및 방염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처리 후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과거의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낼 기술자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재는 과거 수리한 목수들의 기법과 함께 부재 교체 날짜 등이 기입돼 있다.

윤명오 한국화재소방학회(서울시립대 교수)은 “방재시스템과 함께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며 “방염 처리, 문화재 보수 등에 승가에서도 전문가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일본 고야산 미네지는 명속 노출 수막 시스템을 통해 전각을 화마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동트는 새벽처럼 진리의 등불을 환히 밝히는!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창립 제6주년 기념 및 회장 이·취임식

上求菩提下化衆生(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중심인 부산지역 불교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창립 6주년 및 회장 이취임식을 맞아 불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부대중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일시

* 일시 : 2012년 11월 20일(화) 오후 6시

* 장소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문의_ 051)334-0108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12-3 정산빌딩 9층

- 특별고문 : 허남식, 안영욱
- 고문 : 김재은, 김재진,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박수관, 이윤희, 허인규, 박민식, 김영주
- 자문위원 : 김석조, 김종해, 조성재, 박홍대, 박수곤, 이명관, 김기춘, 차승민, 심수화, 황성규, 김수병
- 상임고문 : 박수관(주)영창기술 대표이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 직전회장 : 허인규(학교법인 동통학원이사장,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 회장 : 박순곤(부산불교방송 사장)
- 수석부회장 : 김종백(주)가보 대표이사, 부산상공회의소 감사)
- 부회장 : 김수현, 신재철,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장인화, 최상섭, 김승영, 양재생, 장석준, 최석식, 김기재
- 감사 : 노종현, 박형주
- 사무총장 : 신상해
- 재무총장 : 박차수

- 총무이사 : 장병주
- 기획이사 : 안천일
- 친목이사 : 공정근
- 사업이사 : 정연식
- 조직이사 : 이현호
- 홍보이사 : 이현수
- 상임이사 : 강갑균 강선태 권기우 김동열 김상훈 김선오 김선일 김성규 김윤진 김영현 김장현 김종훈 박상호 박성봉 박효근 박홍근 배상진 배영호 손종현 안병호 윤선병 이상필 이재동 이종우 임정웅 장준업 정원준 조길재 최익두 최윤희 하만경 허문원 허대영 허성하
- 일반이사 : 강인용 강수구 권성필 공영석 김민권 김승용 김인석 김정선 박창근 배도경 성낙구 손태석 신영만 신태용 안경수 안덕우 안호광 이길문 이남현 이병준 이상락 이학우 임성준 우보현 전영일 정종원 정홍섭 조정현 차득근 최강수 최금식 최대경 최상근 최주덕 황대성 황희성 정관희

불기 2556년 11월 좋은날

사단법인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회장 허인구
신임회장 박순곤